

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구나 북한 내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에서도 이제는 취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진정한 체제하에서는 3대 혁명역량 강화의 구조가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파해 나갈지는 두고 보아야 하지만 예상건대 진정한 체제로 지속되는 한은 구조적인 변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술적인 변화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3) 대남혁명전술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은 남한 내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엘리트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크게 조직형태, 부정형태, 선동술로인므로 그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좀더 풀어서 이해하면 혁명전술이란 혁명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다. 대표적인 혁명전술을 추축하여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1) 지하당 구축전술 이는 남한 내에 조선노동당의 진위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에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에 남민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을 남한에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지하당 구축에 집요한 노력을 전개하는 이유는 혁명주력군의 기층조직을 ^{실질}수 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남한 자체의 혁명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일전선전술 이 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조직전술의 하나이다. 원래의 뜻은 정면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상대편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이용하고 동맹 가능한 부동층피도 타협하거나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에서는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

계에서 주적용 타도하는 데 공산당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용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결 형성하여 공격하는 기법으로 나타난다.

북한이 이 전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원칙으로는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삼아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킬 것,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통일전선체 내에서 중간층, 민족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1949년 '조선공로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바 있고, 이후 반미 구국통일전선,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등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에 통혁명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 출범시켰으며, 1990년대에 들어 진민족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범민족대회를 통해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연합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조선공로인 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선공로인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고 활동중에 있다.

3) 대중투쟁전술 이는 각종 투쟁의 유형과 방법을 상황에 따라 잘 배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전술이다. 여기에는 첫째로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의 배합이 있다. 반합법투쟁이란 기본적으로 비합법투쟁을 전제하면서 현행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투쟁을 일컫는다. 둘째로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배합이다. 이는 레닌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라는 전술을 인용한 것으로 먼저 노동자나 일반 민중들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 등의 구조물 내세워 경제투쟁을 전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파업, 시위, 폭동, 무장봉기 등을 지향하는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직접히 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의 배합이 강조된다.

4) 국군외화전취전술 북한은 국군을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무력적 기초이며 반동통치의 중추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혁명 성사를 위해서 는 반혁명 무력용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국군을 외화전

3) 북한연구소, 『북한외교정책(1949-1990)』 (한울), 통일연구원, pp. 942-944.

서울지방법원

당사자본인신문조서 (1999. 9. 28. 변론조서의 일부)

증
제
부
호
증

사 건 98가합 86702 손해배상(기)
 피 고 본 인 황 장 엽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미소지
 직 업
 주 소

재판장 판사

피고 본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허위진술의 제재를 경고한 다음, 별지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하였다.

원고 대리인

- 1 가. 문: 피고 본인(이하 '피고'라 함)의 학력은 어떠한가요.
 답: 평양상업고등학교와 모스크바종합대학을 거쳐 1953. 12.에 박사원을 졸업하였습니다.
- 나. 문: 피고의 주요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김일성대학에서 철학강좌를 하였고, 1958년부터는 김일성의 일어수업을 하였으며, 1972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 1979년부터는 당비서로 근무하였습니다.

다. 문: 그 당시는 어느 분야에서 일하였는가요.

답: 원래는 지도사상담당비서였는데, 주체사상담당비서도 하였고, 과학교육비서, 국제사업담당비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으로 된 문헌을 써주는 부서의 담당비서 등도 하였습니다.

라. 문: 국제담당비서로 일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일하였고, 그후에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1993년부터 이곳에 올때까지 다시 국제담당비서를 하였습니다.

1 가. 문: 피고는 대남공작관련 분야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가요.

답: 관련부문에서 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관계 문제는 중앙당 국제비서와 통일전선 담당비서, 외교부장 세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어 있다 보니 당내에서는 국제부와 통일전선부가 아주 가깝습니다.

나. 문: 국제사업담당비서로 일한 것은 대남공작분야에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답: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임자로 일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고, 사상민원담당비서의 직책에 있으면서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가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문헌담당비서로도 일하였기 때문에 대남정책에 관한 대안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으로 결정하여 내보낼 때 우리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문: 대남공작관련부서가 현재 국제부는 아니지요.

답: 예. 대남공작관련부서는 통일전선부, 사회문화부 또는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이 있는데, 통일전선부는 대남전선 및 외교부라고 볼 수 있고, 사회문화부 또는 대외연락부는 남한의 지하당 조직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부는 남한에 무장간첩들과 잠수정 내려보내는 일 등을 하고, 35호실은 해외에 나가 그곳에 주둔하면서 그곳의 국적을 가지고, 또는 그곳에 파견되어 해외공작을 담당합니다.

라. 문: 1989년 이후에 위 4개 부서의 책임자는 누구였는가요.

답: (통일전선부는 연기복이 맡았다가 나중에 김용순이 맡았고, 사회문화부는 이창선이 맡았었는데, 요즘에는 강관수가 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전부는 오극렬이 맡았고, 35호실은 권희경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1. 문: 피고는 1997. 2. 12.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민국에의 귀순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4. 20. 서울에 왔는가요.

답: 예.

1. 문: 피고는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을 언제 출간하였는가요.

답: 그 책을 쓰기는 1997. 11. 13.부터 12. 18.까지 집필을 하여 1998. 6.에 초판이 나오고 1998. 12.에 재판이 나왔다.

1. 문: 피고는 위 책 77쪽에서 "나는 독일에 있는 송두울교수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총명하고 박식한 학자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 학생들과 독일에 있는 남한 유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김철수'라는 가명 밑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고 김일성이 접견한 사진을 신문에 크게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 김정일이 그를 믿고 있는가? 김정일도, 통일전선부 간부들도 그를 믿지 않고 있다. 대남공작을 하던 이선실도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그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있다. 만일 송두울교수가 이선실을 직접 만나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면 이선실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에게 속아서 한 생을 헛되이 보내고 남의 웃

음거리가 된 것이 얼마나 가슴아프가에 대하여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기술하였는가요.

답: 예.

1. 문: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의 담당업무나 역할은 무엇이였는가요.

답: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은 직책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지도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 이를 논의, 통과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나 역할은 없습니다.

1. 문: 정치국 후보위원 중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대남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가. 문: 위 책에서 언급한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기관인가요.

답: 당중앙위원회 집행부서들 중 한 개 입니다.

나. 문: 1991년도 이후 통일전선부의 부장과 부부장은 누구였는가요.

답: 김용순이 통일전선부 부장 겸 담당비서였고, 제1부부장은 강주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강관주와 이동욱이었습니다. 부부장들은 많은데, 제1부부장은 부장과 동격입니다.

1 가. 문: 피고는 원고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3차례 정도 직접 만났습니다.

나. 문: 원고를 직접 만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는가요.

답: 김일성이 원고를 만난 것이 1991년인데, 그때 노동신문에 크게 사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증인에게 '증인의 자료연구실 연구원을 통해 원고를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인의 제자인 이성갑 실장, 박승덕 부실장, 김용춘을 보냈으나 그

후에 김용순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원고가 자본주의 철학사상에 너무 몰두가 있어서. 피고가 직접 교육을 해달라. 김정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느 부서장이 자신의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타부서장에게 부탁할 때는 꼭 김정일의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다. 문: 김용순으로부터 원고의 교육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 인가요

답: 1991년 내지 1992년 초정도 됩니다.

라. 문: 김용순이 피고에게 원고의 교육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는/김용순이 가 원고를 이미 만난 상태였는가요.

답: 예. 훨씬 이전에 만났습니다.

마. 문: 그 이후에는 또 언제 원고를 만났는가요.

답: 두 번째 만난 것은 1993년경이었는데, 그때는 김용순을 통하지 않고 피고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만나자고 하여서 만났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원고가 피고에게 '남한의 말이라는 잡지사에서 조선역사와 관련한 백과사전을 내는데 그중 하나의 항목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원고 100매 정도의 글을 써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 글을 써주었는데/원고가 보더니 남한 방식으로 수정해야겠다고 하여서/피고가 주체사상은 진리이므로 표현방식은 고칠 수 있지만 구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였는데도/원고는 이를 수정하여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1-2회 정도 만났습니다.

바. 문: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원고청탁을 받은 것은 언제였는가요.

답: 1993년 내지 1994년 정도였는데, 하여튼 김일성 장례식 전이었습니다.

사. 문: 원고의 청탁으로 피고가 쓴 위 100매 정도의 원고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

달하였는가요.

답: 피고의 제자인 이성갑을 통해서 전달하였는데, / 통일전선부에서 이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그 전달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 문: 피고는 그 책자가 언제 나왔는지는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자. 문: 한길사에서 발간된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의 내용이 피고나 이성갑 교수가 써서 준 내용과 동일한가요.

답: 아닙니다.

1 가. 문: 피고는 원고가 1982년도에 독일 뮌스터대학 정교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나. 문: 피고는 원고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훔볼트대학에서 정교수로 재직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정교수는 못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말하기를 '정교수가 되면 주체사상토론회를 조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베를린대학에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 가. 문: 피고는 원고가 북한을 몇 번이나 방문하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매년 와서 피고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나. 문: 피고는 원고가 1998. 2 방북하였는지 여부를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다. 문: 원고가 북한 방문기간중 김일성을 몇 번이나 단났는지 아는가요.

답: 증인이 아는 것은 1991. 5.경 한 번이고, 추측하는 것은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임명될 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꼭 만나게 되어 있으니 한 번 정도는 만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몇 번이나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라. 문: 그러면 원고가 김정일이나 이선실 그밖의 통일전선부 간부 등 북한 고위관계자를 만났는지 여부를 아는가요

답: 김일성 장례식에 와서 김정일을 만났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 문: 원고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는가요.

답: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정치국후보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것은 분명한데 언제 가입했는지는 모릅니다.

1 가. 문: 1994. 7.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은 약 몇 명이었는가요.

답: 원래는 전혀 참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중국에 있는 빨치산 계통의 사람들이 1~2명 참석하였습니다.

나. 문: 그당시 세계일보사장 박보희가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1 가. 문: 김일성 사망당시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이 몇 명이었는가요.

답: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치국위원도 10명 이내였고, 후보위원도 10명 이내였으므로 다 합해서 20명 미만이었습니다.

나. 문: 정치국위원이나 후보위원은 어느 기관(기구)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있는가요

답: 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당중앙위원회가 정치국과 비서국을 선발하는데, 실무적인 것은 모두 조직부가 합니다.

다. 문: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답: 규약상으로는 대회와 대회 사이가 1기이고, 1기는 5년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라. 문: 정치국 회의는 자주 열렸는가요.

답: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마. 문: 1991년 이후에 정치국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아는가요.

답: 잘 기억나지 않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열렸습니다.

바. 문: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정치국 회의가 열린 적이 있는가요.

답: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열렸습니다.

사. 문: 피고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에 선출된 적이 있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아. 문: 피고는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는가요.

답: 항상 참석하였습니다.

자. 문: 그렇다면 피고가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정치국 후보위원 중 김철수를 본 적이 있는가요.

답: 이선실 등 대남사업담당자들은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1 가. 문: 피고가 위 책에서 원고는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기술한 근거는 김용순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 예. 김용순에게는 두 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피고가 직접 김철수에게 주체사상교육을 시켜달라고 할 때였고, (또 한 번은) 주체사상에 관한 원고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김용순이 원고를 비방하여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져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관한 원고를 주고받을 때 원고를 김철수라고 칭하였습니다.

나. 문: 그렇다면 피고는 주체사상에 관한 원고를 써서 원고에게 건네줄 당시에 원

고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예.

다. 문: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때가 언제쯤인가요.

답: 정치국 후보위원은 상무위원회에서 정하여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 문: 피고는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

답: 1992년 김용순이 이야기할 때도 들었고, 1993년 내지 1994년경 주체사상에
관한 논문이 문제되었을 때도 김용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 문: 김일성이 '김철수를 접견한 사진이 노동신문에 실린 것은 언제인가요.

답: 1991. 5.경입니다.

바. 문: 외국의 고위 사절단이나 해외동포들이 방북하면 김일성이 직접 면담하고, 그 장면은 통상 중앙TV나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부도되어 왔는가요.

답: 예.

사. 문: 김철수가 1991. 5. 김일성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 그후에 김일성을 또 만난 적이 있었는가요.

답: 피고의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 문: 김철수가 노동당 행사나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는가
요.

답: 위에서도 증언하였듯이 대남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당 행사나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선실의 경우에는 간첩이라는 것이 폭로되어 더
이상 남파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자. 문: 피고는 김철수의 근무처가

답: 모릅니다.

차. 문: 피고는 김철수의 근무기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지 아는가요.

답: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 통일전선부에서 어디에 파견하고, 어떠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카. 문: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앙

TV 등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보도된 것은 김일성 장의위원회 명단

발표때였습니다.

타. 문: 장의위원회 명단 발표시 김철수의 직책은 어떻게 보도되었는가요

답: 직책은 없습니다.

1 가. 문: 원고가 남북해의학자 통일학술대회의 개최에 많은 공헌을 하여 1995년 이후

매년 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나. 문: 주체과학원과 사회과학원에서 학술대회에 매년 인원을 파견하는가요.

답: 그런 곳에 인원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피고는 그에 대해 투표만 해 줄뿐 일일이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다. 문: 피고는 1989년 당시 국회의원 서경원의 방북사건을 알고 있는가요.

답: 남한에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라. 문: 위 사건 당시 그와 관련하여 독일 본 주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작성하여 대한민국정부에 보고한 '영사증명서'에서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공작원

9월 1
Vgl. P. 13

은 조선노동당 구라파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수이며 그는 1936. 3. 순 출생으로서,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술 (보고)되어 있는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다. 문: 피고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성수'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바. 문: '조선노동당 구라파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1. 가. 문: 원고가 독일에서 이른바 어떤 '친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아는가요.

답: 단편적으로 토론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1987년에 피고가 일본에서 만난 어느 남한교수가 똑똑하더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원고는 '그 교수가 사상적으로 변질되서 우리가 조직에서 추출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에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공사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가 '남한 대학생들의 주체사상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자, 원고가 그런 것쯤은 문제도 안된다는 듯이 '주체사상토론회의 범위를 넓혀 국제적범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정교수가 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문: 피고는 이선실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가요.

답: 예. 몇 번 만났습니다.

1. 가. 문: 피고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통일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가요.

답: 예.

나. 문: 피고의 저서 '북한의 진실과 허위'는 몇 부나 판매되었는가요.

답: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누어 주었는데, 몇 부나 배포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갑제3호증(책자) 제시>

1. 문: 피고는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는 회고록에서 "나는 독일에 있는 송두울 교수와 남한의 소설가 황석영과도 만난적이 있다..."(272-273쪽)고 기술하였는가요.

답: 예.

1 가. 문: 피고는 김용순으로부터 원고를 교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위 부탁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1991년 내지 1992년 초쯤입니다.

나. 문: '교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사상개조를 시켜서 튼튼하게 무장시킨다는 뜻입니다.

1 가. 문: 피고는 김용순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원고를 직접 만나서 주체사상 강의를 하였는데, 한 번 만나게 되면 2~3시간 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나. 문: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기전에는 주체사상주의자가 아니었다가 피고를 만난 다음부터 주체사상주의자가 된 것인가요.

답: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북한 노동당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주체사상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 교양을 하는 것입니다.

1. 문: 피고는 김용순이 원고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였는가요.

답: 예.

1. 문: 피고와 김용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의 당내 서열은 어떠한가요.

답: 당내 서열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직책은 표면상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김철수는 서열은 높아도 권한이 없습니다.

1. 문: 피고나 리성갑, 박승덕, 김영춘은 언제, 어디에서, 몇 차례나 원고를 만나 주체사상 강의를 해주었는가요.

답: 1991년도부터 여러차례 만났습니다. 원고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위 3명을 함께 보낸 적도 있습니다.

1 가. 문: 김일성 사망시 국가장의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이었는가요.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50여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나. 문: 그 사람들은 모두 장례시에 참석하였는가요.

답: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 문: 피고가 장의위원 '김철수'를 김일성 장례식 무렵이나 또는 그 이전·이후에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전부터 원고를 김철수라고 부르곤 만났습니다.

라. 문: 장례식 당시 '김철수'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김철수는 비밀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직책이 없었습니다.

마. 문: 비밀사업이란 대남공작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간첩활동이나 다른 임무를 받아서 활동하기도 하는데 김철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사업을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바. 문: 김철수가 김일성 장례식에 조문을 했는지 여부는 아는가요.

답: 일단적으로 다 하였습니다. 김철수는 사진을 절대 못찍게 되어 있으므로 어

vgi. p. 10

vgi. p. 10

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 문: 김철수를 제외하고 사진을 일체 못찍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답: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문: 원고를 장례식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요.

답: 초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밖에 없습니다.

자. 문: 피고는 위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요.

답: 피고가 국제담당비서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김정일이 원고만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김용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차. 문: 위와 같은 이야기를 김용순으로부터 들은 때는 언제인가요.

답: 해외에 있는 사람을 초청할 때는 통일전선부와 국가보안부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의위원회 명단 발표후 중인이 김용순에게 누구 누구를 초

청하자고 이야기 하였더니 '김정일이 원고만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

습니다.

카. 문: 위와 같은 말은 김용순을 직접 만나서 한 것인가요.

답: 우리끼리만 통화할 수 있는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타. 문: 피고는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가요.

답: 7. 9.에 듣고 7. 13.에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파. 문: 7. 13.에는 원고가 독일에 있는 북한 이권대표부로부터 이미 초청을 받은 상
태였지요.

답: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 문: 장의위원회 서열 7위로 발표된 김병식은 노동당 소속이 아니라 조선사회민주
당 위원장이었는가요.

답: 예.

거. 문: 장례식 무렵 원고는 봉화초대소에서 최귀하 박사 등 독일과 구라파에서 온
사람들과 생활한 것을 알고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너. 문: 1994. 7.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해외동포들은 중국에서 온 항일빨치산 몇
명이었다고 하였는가요.

답: 예.

더. 문: 김일성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인 1994. 7. 20. 평양 목란관에서 김용순 비서가
장례식에 참가한 해외동포들 약 200여명을 초대하여 위로연을 베푼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러. 문: 당시 위로연에는 조총련계 사람들이 제외되고 최기환 박사(스위스),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 전충림 부부(토론토), 양은식(LA), 최정열(워싱턴), 김현란
목사(LA), 전순태(샌프란시스코), 양동민(오사카), 박보희(세계일보 발행인),
문명자(재미 언론인) 등 해외동포들이 참석하였는가요.

답: 모릅니다.

머. 문: 김용순의 인사말에 이어 임민식(덴마크), 최홍희, 전충림, 양영동, 선우학원,
최건국(프랑크푸르트), 이영빈(프랑크푸르트), 최기환, 김운하, 양동민, 조대성
등 11명이 답사 및 결의문을 낭독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1 가. 문: 1994년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일, 오진우이고, 정치국 정위원은 강성
산, 이종욱,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광,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서운석 등

10명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은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선실 등 8명이었는가요.

답: 예. 그리고 김철수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제3호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책 부록에 있는 '노동당 기구' 조직표를 제시>

나. 문: 피고는 위 책 위 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그것은 출판사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다. 문: 정치국 후보위원 중 가명을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가요.

답: 예.

라. 문: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가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위원,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는가요.

답: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1. 문: '김철수'가 노동신문이나 중앙TV에 보도된 적이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1가. 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체사상에 관한 100매 정도의 원고를 요청받았다고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주었다는 원고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세계관, 사회역사관, 인생관 등의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 문: 1994. 3. 원고의 3번째 방북시 원고는 한길사 간 '한국사' 초두에 실릴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자체사상' 원고를 4부 복사하여 피고와 박승덕, 김영춘, 리성갑 교수 등에게 전달하였다는데 맞는가요.

답: 피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 이야기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 문: 이를 읽어본 리성갑 교수가 원고에게 "송선생이 주체사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하자, 원고가 "나는 학문에서 모든 입장을 사상지킨 방법은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한 사실을 아는지요.

답: 모릅니다. 그러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라. 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를 보낸 '그 다음 해' 원고가 피고를 찾아온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매년 왔었습니다.

마. 문: 당시 통일전선부 부장 및 부부장은 누구였는지요.

답: 부장은 김용순이었고, 제1부부장은 강주일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 문: “정치국 후보위원을 시켰더니 건방져서 통일전선부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나온 것인가요.

답: 한길사 원고를 통일전선부에 보내고 난 뒤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김용순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1. 문: 김일성은 생전에 이선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요.

답: 모릅니다. 이선실은 1980년대 당대회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 가. 문: 위 책의 내용 중 “송두울은 주겠다”는 것인지 달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미치광이여서 상대하기가 어렵소. 황비서께서 좀 영향을 주어 그의 머리를 고쳐주소”라는 부분은 누가 이야기한 것인가요.

답: 김영순도 그렇게 이야기 하였고, 이성갑이나 부부장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나. 문: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달라는 것인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어떠한 내용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 문: 이때는 원고가 후보위원으로 선출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답: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후입니다.

라. 문: 위 말은 원고의 주체사상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남공작을 잘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 같은데, 어떠한가요.

답: 그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너무나 많이 자본주의 철학에 물들어서 주체철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교양시켜야겠다는 것이 주체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체사상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후보위원으로 내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 가. 문: 피고는 김영환이 1991년 남파간첩 윤택림에게 포섭되어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면담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 문: 피고는 윤택림의 소속과 직위, 직책 등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다. 문: 피고는 윤택림이 대외연락부 5과장으로서 1977년부터 1989년까지 5차례 남파되어 활동한 공로로 영웅메달 1개, 김일성 훈장 1개, 국기훈장 1급 4개를 받은 전문 공작원인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영웅메달은 공개적으로 주지도 않고, 당에서도 그러한 공작활동들은 모릅니다.

라. 문: 윤택림도 당의 행사 등에 참석하지 않았는가요.

답: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다. 문: 피고는 윤택림이 1989. 7. 남파되어 '김철수'로 위장한 다음 서울 노량진 사육신 묘지 부근에서 김영환을 만나 북한 공작원임을 밝히고 그를 포섭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피고 대리인

1. 문: 정치국 후보위원은 정치국 회의에서만 선출된다고 하였는데, 이선실이나 원고 송두열 등은 예외적으로 임명하였다는 취지인가요.

답: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정치국 후보위원은 일반적으로는 당대회에서 임명하지만 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토론을 하였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발표할 때는 당사무위원회에서 그 임명에 관하여 토론했다고 하면서 통지를 합니다.

1. 문: '김철수'라는 가명에 대하여 김용순으로부터 듣고, 또 누구로부터 들었는가요.

답: 처음 원고에게 주체사상교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날인가, 원고를 데려올 때 부부장이 원고를 김철수라고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1. 문: 대남사업을 주관하는 북한의 부서에서는 정치국 후보위원 중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였는데, 직접 대남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할지라도 가명을 사용하지요.

답: 대남사업을 하는 사람, 즉 당 중앙에서 직책이 있거나 대남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한 사람만을 후보위원으로 뽑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선실이 더 이상 대남사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텔리 등을 포섭하기 위하여 김철수를 후보위원으로 뽑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후보위원들은 가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명을 사용한 사람은 김철수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1. 문: 피고는 법원에 제출한 본인신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부정하는 것은 피고가 북한 사상담당비서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 내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근거나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피고가 북한에서 20년 넘게 비서활동을 해왔으므로 그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증인을 믿지 못한다면 김정일과 김용순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문: 이 소송을 대하는 소회는 무엇인가요.

답: 법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북의 고위핵심으로 있으면서 견문한 바를 사실 그대로 기술하였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원고는 자신이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당에 충실하다는 것 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김용순 비서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김정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황장엽 비서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오히려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피고는 오랫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을 섬기면서 북한의 권력핵심에 종사한 일 자체에 대하여는 불명예스럽다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양심적으로 행동한 것들에 대하여는 자기반성을 하였고, 북한 체제의 허구와 기만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를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과 결별을 하고 나름대로 보장된 북에서의 지위를 마다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송교수가 스스로 학자로서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인격을 더럽히면서까지 이러한 역사의 진리를 계속 부정한다면 피고가 꼭 그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주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고 대리인

1. 문: 북한 인명사전에 의하면 김철수라는 이름이 없는데, 노동당 간부 중에서 김 일성 장의위원회 명단외에 김철수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1가. 문: 이선실 관련해서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고 증언한 것은 중부지역당 사건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답: 그러한 사정은 모르고, 이선실이 앞에 나서게 된 때부터 그 태도가 어쩔 줄 몰라하고 늘상 초라해 보였으며, 이선실이 김일성에게 인사를 하였을 때 김 일성이 이선실을 가르켜 누구냐고 묻는 등 이런 저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이선실이 가련한 신세라고 느껴졌습니다.

나. 문: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답: 1989년 광복길 건설후 철도를 놓을 무렵인 1991 내지 1992년 정도 될 것입니
다.

1가. 문: 노동당내의 정치국 서열이 비서국보다 높은가요.

답: 노동당은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서열이 없습니다.

나. 문: 일반적으로 정치국 위원나 후보위원이 비서보다 서열이 높고, 부서의 부장이
나 부부장보다도 서열이 높은 것은 맞지요.

답: 예.





재판장판사

정인진



우137-602 서울서초우편국 자서합200호 전화(2203-4533)/ 전송(2187-0336)/ 담당자(유)

문서번호 대전32331-60
 시행일자 2000.11.20 (1년)
 공개여부 (비공개)

선			지	
량			시	
접	일자	결	재	
	시간			
수	번호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수신 서울지방법원장
 참조 제16민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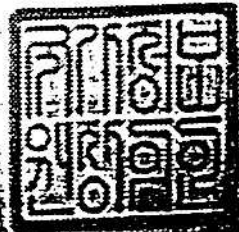
제목 사실조회 요청사항 답변

1. 귀 법원에서 요청(9.25)한 사건98가합86702 관련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우리원 답변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사실조회 답변자료 1부. 끝.

92257

국가정보원장



"내가 먼저 바르려면 은나간가 바르선다"

증제
회중

사실조회 답변자료

2000.11

1. 선출기관, 선출절차, 선출시기

시기는 어떠하며,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사람과 선출된 당시

< 목 차 >

【선출기관, 선출절차, 선출시기】

중앙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의 후보의원은 당 중앙의 전원회의 선거(당규약 제25조)를 통해 선출

1. 항목별 질의 및 답변

중앙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의 후보의원은 당 중앙의 전원회의에서 대독적으로 채택되며 전원회의는 당규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당 중앙의 전원회의를 별도로 별도로 발표할 수 있는 표기하고 있음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내용】

2. 첨부 자료

○ 북한 권력서열 변동현황

(94.7.8-25 전문,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오진우(이종옥 탈락))

○ 김일성 국가장의회위원회 명단 (발표순)

○ 오진우 국가장의회위원 명단 (발표순)

○ 방송 자료

○ 노동신문 (94.7.8-25 전문)

○ 29번 항목 불임자료

김정일(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백룡(국방외부위원장), 김중현(당부총서장), 김명섭(당비서), 전문섭(호위총국장), 김환(당 중공업부장), 연형복(당 보서), 스구린(공산철교장), 권순태(당 국제부 부부장), 강성산(국무안 부총리), 배차리(인민보레부 부부장)

김정일(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백룡(국방외부위원장), 김중현(당부총서장), 김명섭(당비서), 전문섭(호위총국장), 김환(당 중공업부장), 연형복(당 보서), 스구린(공산철교장), 권순태(당 국제부 부부장), 강성산(국무안 부총리), 배차리(인민보레부 부부장)

김정일(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백룡(국방외부위원장), 김중현(당부총서장), 김명섭(당비서), 전문섭(호위총국장), 김환(당 중공업부장), 연형복(당 보서), 스구린(공산철교장), 권순태(당 국제부 부부장), 강성산(국무안 부총리), 배차리(인민보레부 부부장)

김정일(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백룡(국방외부위원장), 김중현(당부총서장), 김명섭(당비서), 전문섭(호위총국장), 김환(당 중공업부장), 연형복(당 보서), 스구린(공산철교장), 권순태(당 국제부 부부장), 강성산(국무안 부총리), 배차리(인민보레부 부부장)

김정일(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오백룡(국방외부위원장), 김중현(당부총서장), 김명섭(당비서), 전문섭(호위총국장), 김환(당 중공업부장), 연형복(당 보서), 스구린(공산철교장), 권순태(당 국제부 부부장), 강성산(국무안 부총리), 배차리(인민보레부 부부장)

1.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위원, 후보위원의 선출기관과 선출절차, 선출된 시기는 어떠하며,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위원,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사람과 선출된 당시 직책, 선출기관의 어떠한지 여부

【선출기관·선출절차·선출시기】· 서윤석(당 중앙위 부부장), 후보위원에서 의원으로 승격

○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후보위원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선거(당규약 제6기 8차회의 : 총 20명 24조)를 통해 선출

○ 보통 당대회 직후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폭적으로 개편되며 전원회의시 수시로 교체되며 발표하는 명단만 발표할뿐 직책은 표기하지 않음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내용】 후보위원으로

- 213 김일 사망 214 오백룡 사망

- 80.10 최초구성(5명) :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욱
- 81.5 : 김일성, 김일, 김정일, 오진우, 이종욱(김정일·오진우 서열변동)
- 83.9 : 김일성, 김일, 김정일, 오진우(이종욱 탈락)
- 84.3 :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김일 사망)
- 94.7 : 김정일, 오진우(김일성 사망)
- 95.2 : 김정일(오진우 사망)

【정치국 위원 변동내용】

○ 80.10 제6기 1차회의 : 최초 구성 (19명)

김일성(국가주석), 김일(중앙인민위 위원), 오진우(인민무력부장), 김정일(당 조직지도부장), 이종욱(정무원 총리), 박성철(국가 부주석), 최현(국방위원), 임춘추(중앙인민위 위원), 서철(중앙인민위 위원), 오백룡(국방위부위원장), 김중린(당통전부장), 김영남(당비서), 전문섭(호위총국장), 김환(당 중공업부장), 연형묵(당 비서), 오극렬(군 총참모장), 계응태(당 국제부 부부장), 강성산(정무원 부총리), 백학립(인민무력부 부부장) * ()는 당시 직책

○ 82.8 제6기 6차회의 : 총 19명

- 81.10 계응태,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82.4 최현(지방위 부위원장) · 한성룡,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2.8 최영림(당중앙위 부장) · 서윤석(당 중앙위 부부장), 후보위원에서 위원

○ 82.12 제6기 7차회의 : 총 12명
으로 승격

이도 헌담 사망 82.8 서윤석 사망

○ 83.11 제6기 8차회의 : 총 20명

- 82.12 안영복,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83.11 허담(의교부장),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6.2 제6기 11차회의 : 총 14명

- 83.12 김종린,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84.3 김일 사망, 84.4 오백룡 사망

- 85.10 전문섭 · 백학림 · 최영림 탈락

○ 86.12 제6기 12차회의 : 총 15명

- 86.12 이근모(평남도당 책임비서) · 홍성남(국가계획위원장),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6.12 김환 탈락

○ 88.3 제6기 13차회의 : 총 15명

- 88.2 오극렬 탈락

- 88.3 계응태,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8.11 제6기 14차회의 : 총 15명

- 88.4 임춘추 사망

- 88.11 전병호(당중앙위 부장), 후보위원에서

(지방위 책임비서) 김강화 (군 총장)

○ 88.12 제6기 15차회의 : 총 14명

(부부장) · ()는 당시 집권한 야당이던 민주당

- 88.12 이근모 탈락

이정철은 88.10 선출이후 88.11 관공관 출석사건

계
책일
원무광
장 등 전쿠
야금관 (관공)
최초 등장

○ 90.5 제6기 1차회의 : 총 15명

- 82.2 김철만, 82.8 김철만, 82.8 김철만, 82.8 김철만, 82.8 김철만
- 89.3 홍성남,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90.5 최광 (국방위 부위원장), 한성룡,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2.8 계응태,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92.12 제6기 20차회의 : 총 12명

○ 91.5 허담 사망, 92.9 서철 사망

- 92.12 연형득,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82.11 안승화 (평양시 행정의원장), 홍성룡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장), 김영남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장)

○ 93.12 제6기 21차회의 : 총 13명

- 93.12 김영주 (김일성 동생) 보선

○ 92 제5기 11차회의 : 15명

○ 94.7 김일성 사망 : 총 12명 후보위원으로 격하

- 84.7 홍성남 (부총리), 조지현 (부총리) 보선
-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영남, 최 광, 계응태, 전병호, 서윤석, 김지태, 안승화, 김주만, 홍성룡, 안락
- 한성룡, 서윤석

○ 2000.9월 현재 총 7명 (95.2 오진우 · 97.2 최 광 · 99.9 이종옥 사망, 98년말 서윤석 숙청, 97.2 강성산 은퇴)

- 82.12 김철만, 82.8 김철만, 82.8 김철만, 82.8 김철만, 82.8 김철만
- 김정일, 김영남, 박성철, 김영주,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정치국 후보위원 변동내용】

○ 80.10 제6기 1차회의 : 최초 구성(15명)

허 담 (외교부장), 윤기복 (당중앙위 부장), 최 광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조세웅 (부총리), 최재우 (중공업 위원장), 공진태 (부총리), 정준기 (부총리), 김철만 (군 부총참모장), 정경희 (당 연락부 부부장), 최영림 (김일성 책임서기), 서윤석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이근모 (평남도당 책임비서), 현무광 (청진시당 책임비서), 김강환 (군 총정치국 부국장), 이선실 (당 통전부 부부장) * ()는 당시 결임한 직책이나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아님 (통상 이름만 발표)

* 이선실은 80.10 선출이후 91.1 민민전 부위원장 직책으로 공개석상 최초 등장

○ 82.8 제6기 6차회의 : 10명

- 81.4 강희원(청진시당 책임비서)
- 82.2 김철만(탈락)
- 82.8 최영림(서운석)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2.8 계응태(92.10) · 홍시학(92.12) 탈락
- 82.8 김두남(당 중앙위 부부장)
- 82.8 전병호(당 중앙위 부부장)
- 82.8 김두남(당 중앙위 부부장)

○ 83.11 제6기 8차회의 : 16명

- 최재우(83.3) · 윤기복(83.6) 탈락
- 83.11 안승학(평양시 행정위원장) · 홍성룡(당 중앙위 부장) · 김복신(정무원 극장) 보선
- 83.11 허담,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6.2 제6기 11차회의 : 15명

- 83.12 김중린,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86.2 홍성남(부총리) · 홍시학(부총리) 보선
- 86.2 공진태 · 안승학 · 김중린 · 홍성룡 탈락

○ 86.12 제6기 12차회의 : 10명

- 김강환(86.4) · 정경희(86.11) · 김두남(86.12) 탈락 확인
- 86.12 이근모 · 홍성남, 후보위원에서 위원 승격

○ 88.3 제6기 13차회의 : 9명

- 88.3 계응태,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8.11 제6기 14차회의 : 9명

- 88.11 한성룡(제2경제위원장) 보선
- 88.11 전병호,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88.11 제6기 18차회의 : 10명

- 89.3 홍성남,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90.5 최태복(당비서) · 김철만(제2경제위원장) · 최영림(부총리), 보선
- 90.5 최광 · 한성룡,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 90.5 정준기 탈락

○ 1921.12 제6기 20차회의지 9명현의

녀부 및 아들 북한당국이 공식 발표하는지 여부
- 92.12 연형묵,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격하

○ 92.12 김달현(부총리) · 김용순(당 통전부장) 보선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

홍조세웅(91.4) · 김복진(92.12) · 홍지학(92.12) 탈락 당시 일치하지는 않음이라고

- 92.3 현무광 사망 공식적으로 권력 계열에서는 별칭하여 발표하는 것은 아님

○ 93.12 제6기 21차회의 : 9명

- 93.12 양형섭 · 홍석형 보선

- 93.12 김달현 · 김용순 탈락

※ 94년이후 정치국회의 차수를 발표하지 않아 개최횟수, 내용등은 파악 불가

○ 1994.7 김일성 장의위원 발표시 김철수 신규 등장

* 김철수 선출 관련 별도 절차는 보도된 바 없으며 김철수는 장의위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송두율이 공개 참석한 추도식 행사명단에는 이름이 빠져있음 (「첨부 1」 참조)

○ 1994.7 강희원 사망 : 9명 (김철수 포함)

○ 1995.2 오진우 장의위원 발표시 김철수 포함

○ 2000.9 현재 8명 (김철수 포함시 9명)

-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양형섭, 홍석형, 연형묵, 이선실, (김철수)

* 김철수는 오진우 장례위원으로 발표된 95년이후 북한의 권력서열발표 순위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음

※ 이선실 (남파간첩)은

- 90.10 귀북한후 91.1 최초 공식석상에 등장하였으나 92년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일체 불명확함

- 금년초 사망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사망 또는 후보위원에서 탈락하였다는 북한의 공식발표가 없어 집계에 포함 여위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누구도 모르는

○ 황장엽 활동

- 94.6.30 김일성의 벨기에 노동당 위원장 집견 및 오찬행사 참석
- 94.7.2 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쿠바 항발
- 94.7.9 모스크바-경유 귀국
- 94.7.13 평양도착
- 94.7.14-15 김용순과 참석대상 초청건 통화
- 94.7.19 김일성 영결식 참석
- 94.7.20 김일성 추도대회 참석
- * 당시 황장엽은 해외출장중에 급거 귀국하여 타부서의 해외인사 초청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도 초청받지 못했고 동문제를 김용순과 상의했을 때 송두울만 참석시키기로 하였다. 답변을 들었던 바 그이후 통전부 내부에서 진행된 사항은 알수가 없었고 또한 통전부가 추진한 7.20 연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몰랐었다고 부언

9. 김일성 장례식에 참석한 북한의 주요인사 및 해외교포, 외교사절, 해외조문단 등은 각 어떠한지 여부

- 김일성 장례식(영결식)은 94.7.19 금수산 의사당에서 개최
 - 참석 북측 주요인사: 김정일, 문력부장 오진우, 총리 강성산, 부주석 이종옥·박성철·김영주·김병식, 부총리겸 외교부장 김영남, 황장엽 등 37명과 그밖의 장의위원
 - * 김철수란 명단은 없음
 - * 황장엽은 당시 주석단에 같이 자리한 서관희 당비서가 "김철수가 누구냐"고 물어왔다고 진술
 - 총련 상임위 한덕수 의장과 책임부의장 허종만을 비롯한 각국의 해외동포들과 항일 혁명투쟁 연고자들이 참석
 - * 7.14 김일성 영구에 조의를 표시한 송두울 등 방북 해외동포들이 동 행사에 참석
 - 각국 조문목적의 외교사절단 방북은 일체 불허

○ 북한이 발표한 해외의 참석자 현황

- <일 본>
 - 조총련중앙 한덕수 의장
 - 조총련 중앙 조의대표단(단장: 허종만 조총련책임부의장) 27명
 - 중앙간부: 허종만 등 3명
 - 상공련등 산하단체: 최경식 부의장 등 14명
 - 지방본부: 지만복 아이치현 본부위원장 등 5명
 - 기타: 홍봉자 금강산가극 단장 등 5명

중앙본부 (청정주, 부총국장 등) 12명

산하단체 (N(상공인: 활취영식, 상공련- 회장 등) 70명

지방본부: 가나가와현 본부위원장 등 6명

기타 기타 동경 중 고급 학교 교장 등 37명 (미 재인 그르 등으로 누르면은지 여부

7-24 일 전국 48개 조총련 지방본부 상공회장등 상공회 중심으로 구성된 100

○ 북연령 조문단 (방북부 단) 이의 회의된 개요 연우

- 양동민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한통련 부의장)

○ 황장열은 김일성행을 받은 해외로가 고령을의 수의한을의 정회한으로 가

<유망의업>에 있는 미현수단 한식사리 (로) 정회한을의 정회한으로 가

송두을, 최건국 (범민련 유럽본부 중앙위원), 최기환 · 이영빈 · 김순환 (이상 범민련 유럽본부 자문위원)

- 임민식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총장)

김철성 주드식 주드식력이 들른 들시 미 장수 주드형석자의 인장사한 등

<각각 어떠한지 여부
<미 국>

유태영 (범민련 미국본부 공동의장), 양은식 (범민련 미국본부 공동의장), 선우학원 (범민련 미국본부 고문), 홍동근 (범민련 미국본부 고문)

○ 문명자 (US Asian News 대표)

- 김운하 (신한민보 사장)

-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 총장)

- 조대성 (국제태권도 연맹 사무국장, 조국통일위성턴연합회장)

- 최정열 (조국통일 북미주협회 고문), 전순태 (조국통일 북미주협회 사무국장)

- 김현환 (미국 자주사상연구소 부장)

- 손원태 (재미동포)

- 박경윤 (재미교포, 금강산 국제그룹 회장)

-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

<중 국>

- 양영동 (범민련 중국본부 의장, 북한적 조교)

원스터중합대 교수, 양영동 범민련 재수선인인... (로) 수득함 범민련

<캐나다> 지역 본부 의장, 이영빈 조국통일해외기독교교회 회장, 유태영 범민련

최흥희 (ITF 총재), 양은식 범민련 미국본부 상의의장, 최기환 범민련 구라과

정영권 본부 의장, 최건국 범민련 구라과 지역 본부 중앙위원, 이철익이 국제통계

Giancarlo Elia Valori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사무총장

Steve Lynton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

참석인물

10. 김일성 장례식때 초청된 학자(조총련계 포함) 및 재외교포들은 누구였는지 여부
- 북측 : 김용순 당리사, 유대영 천도교회 위원장, 백인준 조국통일 중앙위원회

○ 북한 보도내용(9번 질문 답) 이외 확인된 내용 없음
연맹 위원장, 황재철 천주교인연회 위원장

○ 황장엽은 김일성 價를 받은 해외학자·교포들의 방북허용을 건의하였으나 김용순이
“장의위원에 있는 김철수만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였다”라면서 거절하였다고 그런 문제는
통전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언급

11. 김일성 추도식 (추모대회)이 열린 일시 및 장소, 주요참석자의 인적사항 등은
각각 어떠한지 여부

○ 94.7.20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

○ 주요 참석자

- 북측 인사 :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황장엽 등 43명과 그밖의 장의위원들

* 송두율이 참석한 공개행시에는 김철수란 명단은 빠져 있음 (황장엽은 재북시 여러 행사나 회의에서
김철수라는 후보위원은 보지 못하였으며 송두율이 당연히 김철수라고 진술)

- 총련 : 한덕수 의장, 허종만 책임부의장, 최병조 부의장

- 이인모 북송 장기수

- 손원태 재미교포, 진력일행, 서순옥·이재덕·장을화의 아들 장금천, 강일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최홍희 국제태권도 연맹 총재, 임민식 범민련

사무총장, 양동민 범민련 해외본부 부의장, 선우학원 범민련 미국본부 고문,
박보희 세계평화연합 공동의장, 문명자 재미교포 여류기자, 송두율 독일

원스터종합대 교수, 양영동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전총림 범민련
캐나다지역본부 의장, 이영빈 조국통일해외기독교회 회장, 유태영 범민련

미국본부 공동의장, 양은식 범민련 미국본부 상임의장, 최기환 범민련 구라파
지역본부 의장, 최건국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중앙위원, 이탈리아 국제관계
연구소 총서기 엘리아 발로리

1994.7.20 목란관에서 열린 위로연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직책
 초청된 대상은 어떠한가, 또 당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부
 평양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지시

○ 참석인물 관련 독일 북한대표부는 대학교수인 김철수가 94.7.13 출발했으며 7.14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고
 - 북측 : 김용순, 당비서, 유미영, 천도교회=위원장, 백인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의장, 여연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강영섭, 기독교
 연맹=위원장, 장재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 해외측(직책은 既述) : 임민식, 양동민, 최홍희, 강일, 선우학원, 최정렬, 조국통일
 북미주협회 고문, 문명자, 송두을, 홍동근, 조국통일북미주협회 고문, 양영동,
 양은식, 유태영, 최기환, 전충림, 이영빈, 조국통일해외 기독교회 회장과 김순환
 총무, 전순태, 조국통일북미주협회 사무국장, 최건국, 조대성, 극제 태권도연맹
 사무국장, 김운하, 김충자, 고려여성상공회 공동의장, 김현환, 미국자주사상연구소
 부장, 김진경, 제일기업가 손달원의 아들 일행

○ 발언자 : 김용순, 임민식, 최홍희, 전충림, 양영동, 최기환, 김운하, 김충자, 양동민,
 조대성, 선우학원

○ 발언내용 : 대부분 김일성에 대한 추모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황장엽은 당시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참석한 사람들은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상이 될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

13. 당시 송두을이 목란관에서의 위로연에 참석했는지 여부

○ 송두을은 뮌스터대 교수로 참석하였음 (로동신문 94.7.23호 4면 보도)
 * 「첨부 5」 방송자료 참조

14. 김일성 사망이후 장례식이 끝난 직후까지 북한에서의 송두을의 행적 여하

【방북 경위】

○ 송두을은 1994.7.10, 북한 '국가장의위원회'의 초청 연락을 받고 김일성 영결식에
 참석키 위해 같은해 7.13오후 베를린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7.14 평양에 도착

북한은 송두울을 내부적으로는 김철수로 호칭하며 대외적으로는 송두울로 보도

○ 북한은 1994. 7. 10 구 대학강의를 하는 김철수에게 '94. 7. 16까지 김일성 추도식 참가차 평양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지시

○ 이의와 관련 독일 북한대표부는 대학교수인 김철수가 94. 7. 13 출발했으며 7. 14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고

* 한편 94. 7. 14 북한중앙방송은 "7. 14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두울이 평양에 도착" 하였다고 보도

* 상기내용은 북한이 당시 재독 북한대표부에 지시한 내용으로 북한실무자들이 정황이 없어 실명과 가명을 혼용한 것으로 보임

【방북후 체류 행적】

○ 7. 14 오후 평양에 도착 직후 「국가장의위원회」 관계자 1명으로 부터 7. 15 조문 예정이 변경되어 김정일 위원장이 오늘 조문을 받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 7. 14 범민련 유럽본부 의장 최기환, 조총련 한덕수 의장 등과 함께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의사당을 방문하여

- 송두울은 김일성의 영구를 돌아본후 호상을 선 김정일로부터 "이렇게 권길을 와주어 고맙다" 라는 인사를 받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문상 (붙임 사진자료 참조)

○ 7. 20 목란관에서 개최된 위로연에 범민련 사무총장 임민식, 범민련 중앙위원 최건국,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홍희 등과 함께 참석

- 노동당 비서인 김용순의 연설과 위 임민식, 최홍희, 최건국의 김일성 부자 찬양발언을 듣는 등 장례식 행사에 참석

○ 같은 해 7. 23 오전 10일간 조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출발하여 북경을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귀환

15. 1995년 2월의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사망시 장례위원회 구성시기 및 장례 위원은 누구였는지 여부

○ 오진우 95. 2. 25 사망, 同日 장의위원회 구성

○ 장의위원 명단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성산 정무원 총리, 이종욱·박성철·김영주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의교부장·김철수 등 총 240명의 장의위원 구성

* 「첨부 5」 참조 : 오진우 국가장의위원 명단

오진우 장례식에 참석한 북한의 주요인사 및 해외교포, 외교사절, 해외 조문단 등은 각 어떠한지 여부

○ 장례식 : 1995.3.1 대성산 혁명열사능에서 진행

* 발인 및 장례식 장면을 중앙TV(1995.3.1 22:30)로 녹화보도
○ 통일전선부는 78.1 반관단세력 중립선언

- 참석한 북한 주요인사 : 김정일, 강성산 정무원 총리, 이종욱·박성철·김영주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광 인민군 총참모장(애도사 낭독), 계응태·전병호·한성룡·최태복 당비서, 최영림·홍성남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홍석형 국가계획위원장, 이을설·김광진·김봉를·백학림 차수, 김기남·김국태·김중린·서관희·김용순 당비서, 전문섭 국가검열위원장 등

* 명단에 있는 김철수의 참석여부는 화면으로 확인되지 않음

- 참석한 해외교포·외교사절·해외조문단 : 확인 불가능

○ 기타

- 1999.2.26 주북 외교단과 무관단·조총련 책임부의장 허종만 일행 등은 영구가 안치된 2.8문화회관 찾아 조의 표시

17. 오진우 장례식때 초청된 학자 및 재외교포들은 누구였는지 여부

○ 조총련 책임부의장 허종만 일행이 2.14-3.4간 방북하였으며 2.26 오진우 영구를 찾아 조의 표시

○ 초청된 기타 학자 및 재외교포 명단은 북한의 발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음

18. 오진우의 장례식에 송두울과 장의위원으로 발표된 김철수가 참석하였는지 여부, 만약 참석하였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 송두울은 참석하였으나 김철수는 확인되지 않았음

북한 통일전선부의 소속과 역할은 무엇이며,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통일전선부
부장 및 부부장은 누구였는지 여부

()는 **본문**
[소속]

- 70년대 후반 이완기
- 통일전선부는 78.1.17 "반한단체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남조선에서 반파쇼력합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金日成의 지시(77.11)에 따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신설대 초반 : 김경조 · 김병수 · 한시혁 · 이형복 · 윤만기 · 신정국 · 장국진 · 김진호 · 김진환 · 김연수 · 박재해 · 박기환
- 대외활동시에는 조선아세아 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 해외동포원호위원회(해동위) 등의 위장 명칭을 사용

[역할]

- 대남 정세분석
- 남북대화 · 통일전략 수립 및 시행
- 민민전방송 등 대남심리전 업무 수행
- 해외 親北교포 조직 지도

[1980년 이후 통일전선부 부장 및 부부장]

※ 통일전선부를 「非公開 부서」로 운영하면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1) 부장 (통상 黨 對南담당 비서 겸직)

- 1대(78.1-83.12) : 김중린(現 근로단체 담당 黨비서)
- 2대(83.12-88.11) : 허담 (91.5 사망)
- 3대(88.11-90.1) : 김중린
- 4대(90.1-92.10) : 윤기복(現 祖國戰線 중앙위 의장)
- 5대(92.10-93.12) : 강주일(강관주, 現 대외연락부장)

* 당심는 부장과 대남담당 비서직을 따로 나누어 김용순이 대남담당 비서를 담당

- 6대(93.12-현재) : 김용순 (現 對南담당 黨비서)

황상철의 귀 저서를 서철이든 박성배가 (특히 송두울 관련 부분에 대해) 귀 권의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거나 저술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 동 저서는 황장엽이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알린다는 개인의사에 따라 저술한 것으로 당원은 저술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없음

김경원

오진우

오진우

28. 귀 원은 위 저서를 출판함에 있어 그 내용 (특히 송두울 관련 부분)에 대해 자체 조사나 사실확인을 해 보았는지 여부

이종우

○ 당원은 이 저서의 송두울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으며 개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29. (1) 1994.7.8부터 1994.7.25까지의 노동신문 전문과 (2) 김일성 장례식 및 추모대회, 목란관에서 위로연을 보도한 북한 중앙 TV의 녹화테이프 일체 (3) 1995.2경의 오진우 장례식을 보도한 노동신문 전문과 북한 중앙TV의 녹화 테이프 일체 (4) 국회의원 서경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문 및 관련자료, 구속영장 (5) '김성수' 관련 '영사보고서' (6) 김영환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문 및 관련자료, 구속영장 등

○ 자료 별첨

- (1) 94.7.8-25간 노동신문 전문
- (2) 질문 29 (2·3항) 녹화테이프 4건
- (3-6) 항 자료

- 송두울 방북시 사진자료 4매
- 서경원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1권
- 서경원 간첩사건 설명자료 1권
- 서경원 간첩사건 증거자료 1권
- 서경원 구속영장 사본 1부
- 영사증명서 사본 1부
- 「민혁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1권
- 「민혁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보조자료) 1권
- 김영환 구속영장 사본 1부

구분	인원	이름	비고
1	김일성	추도행사 (94.7)	김일성
2	김정일	추도행사 (94.7)	김정일
3	김정일	추도행사 (94.7)	김정일
4	김정일	추도행사 (94.7)	김정일
5	김정일	추도행사 (94.7)	김정일
6	김영주	추도행사 (94.7)	김영주
7	김병식	추도행사 (94.7)	김병식
8	김영남	추도행사 (94.7)	김영남
9	최 광	추도행사 (94.7)	최 광
10	계응태	추도행사 (94.7)	계응태
11	전병호	추도행사 (94.7)	전병호
12	한성룡	추도행사 (94.7)	한성룡
13	서윤석	추도행사 (94.7)	서윤석
14	김철만	추도행사 (94.7)	김철만
15	최태복	추도행사 (94.7)	최태복
16	최영림	추도행사 (94.7)	양형섭
17	홍성남	추도행사 (94.7)	홍석형
18	강희원	추도행사 (94.7)	연형묵
19	양형섭	추도행사 (94.7)	김기남
20	홍석형	추도행사 (94.7)	김국태
21	연형묵	추도행사 (94.7)	황장엽
22	이선실	추도행사 (94.7)	김중린
23	김철수	추도행사 (94.7)	서관희
24	김기남	추도행사 (94.7)	김용순
25	김국태	추도행사 (94.7)	김 환
26	황장엽	추도행사 (94.7)	김복신
27	김중린	추도행사 (94.7)	김창주
28	서관희	추도행사 (94.7)	김윤희
29	김용순	추도행사 (94.7)	장 철
30	김 환	추도행사 (94.7)	윤기복
31	김복신(이하줄임)	추도행사 (94.7)	박남기(이하줄임)

	최고이득 회의 (90.5)	김일성 장의위원 (94.7)	김일성 주도행사 (94.7)	오진우 사망 (95.2)	노동당 50 (95.2)	3년 수모 (97.7)	(98.9)	(99.9)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김정일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박성철	이종옥	김영남
3	오진우	강성산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영주	박성철	이종옥
4	연형묵	이종옥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김병식	김영주
5	이종옥	박성철	박성철	김영주	강성산	김병식	전문섭	김영주
6	박성철	김영주	김영주	최 광	김영남	김영남	김영춘	김일철
7	한성룡	김병식	김병식	최 광	김영남	김영남	김일철	이을설
8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계웅태	계웅태	계웅태	이을설	이을설
9	계웅태	최 광	최 광	전병호	전병호	전병호	이을설	이을설
10	허 담	계웅태	계웅태	한성룡	한성룡	한성룡	이을설	이을설
11	최 광	전병호	전병호	서운석	서운석	서운석	조명록	홍성남
12	전병호	한성룡	한성룡	김철만	김철만	김철만	조명록	홍성남
13	강성산	서운석	서운석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조명록	홍성남
14	서운석	김철만	김철만	최영림	최영림	최영림	조명록	홍성남
15	현무광	최태복	최태복	양형섭	양형섭	양형섭	조명록	홍성남
16	최태복	최영림	최영림	양형섭	양형섭	양형섭	조명록	홍성남
17	김철만	홍성남	홍성남	연형묵	연형묵	연형묵	조명록	홍성남
18	최영림	강희원	연형묵	연형묵	연형묵	연형묵	조명록	홍성남
19	홍성남	양형섭	김기남	이선실	이선실	이선실	조명록	홍성남
20	김복신	홍석형	김국태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조명록	홍성남
21	조세웅	연형묵	황장엽	김병식	김병식	김병식	조명록	홍성남
22	정준기	이선실	김중린	유미영	유미영	유미영	조명록	홍성남
23	강희원	김철수	서관희	김기남	김기남	김기남	조명록	홍성남
24	홍시학	김기남	김용순	김국태	김국태	김국태	조명록	홍성남
25	이선실	김국태	김 환	황장엽	황장엽	황장엽	조명록	홍성남
26		황장엽	김복신	김중린	김중린	김중린	조명록	홍성남
27		김중린	김창주	서관희	서관희	서관희	조명록	홍성남
28		서관희	김운혁	김용순	김용순	김용순	조명록	홍성남
29		김용순	장 철	김 환	김 환	김 환	조명록	홍성남
30		김 환	윤기복	김복신	김복신	김복신	조명록	홍성남
31		김복신	박남기	김창주	김창주	김창주	조명록	홍성남
32		김창주		김운혁	김운혁	김운혁	조명록	홍성남
33		김운혁		장 철	장 철	장 철	조명록	홍성남
34		장 철		공진태	공진태	공진태	조명록	홍성남

김일성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발표순)

성명	직책
김정일	국방위원장
안진우	인민무력부장
강성산	총리
이종욱	부주석
박성철	부주석
김영주	부주석
김병식	부주석
김영남	부총리, 외교부장
최광	군총참모장
계응태	당비서
전병호	당비서
한성룡	당비서
서윤석	평남도당 책임비서
김철만	2경제위원장
최태복	당비서
최영림	부총리, 금속공업부장
홍성남	부총리
강희원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홍석형	국가계획위원장
연형묵	자강도당 책임비서
이선실	민민전 부위원장
김철수	* 직책미상
김기남	당비서, 당 선전선동부장